

# 영암군, 전통시장 화재예방 나선다

영암군이 2018년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장육사용 실태와 동절기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영암군의 전통시장은 5곳으로 영암 5일시장, 신북 5일시장, 시종 5일시장, 군서 5일시장, 확산 5일시장으로 모두 363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장육사용현황(사용자, 사용개수, 판매상품 등), 허가증 소지 및 사용자 체납여부 등을 파악하고 2018년도부터 부과되는 장육사용료

## 영암읍·신북 등 5개 전통시장 363개 점포 대상

### 오는 31일까지 장육사용 실태·화재 예방 점검

부가가치세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전통시장 소방설비 상태 점검을 통해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소화기 설비를 지원하고 1점포 1소화기 비치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벌여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점포 당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암군은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와 시종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이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 시설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천 5일시장은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실

시·설계 사업수행 능력평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시종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3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공사를 착공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미 사용 장육 등 전통시장 취약점을 보완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시장이자 상인들에게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곡성군, 전입 고등학생

### 대학생 등 30만 원 지급

곡성군은 작년부터 지역주민과 향우, 기관·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곡성사이다(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온 공인이 한바탕으로 인구증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3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관내 고등학교와 전입과 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서 기숙사로 전입한 학생에게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할 경우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곡성군으로 전입하면 2회로 나눠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년간 주소 변동이 없으면 매년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군 인구조획팀에서는 지난 18일 관내 한울고와 전남조리과학고를 방문해 학교장을 면담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곡성사이다" 캠페인 참여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도 곡성고와 옥곡고, 전남과학대학교를 방문해 전입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입자 손카드 제작과 인구늘이기 위한 인식개선 가이드 북을 제작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늘이기 UCC 경진대회와 농업관련 학과생 워크숍 개최 등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로는 지역주민과 향우 등 모든 사람들이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곡성사이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장기로는 청년정책과 교육정책을 발걸음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곡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 강진군, 새해 전남도내 첫 기업유치 성공 쾌거



지난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진원 강진군수, 김상운 강진군의회 의장, 각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신안천사기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이 새해 들어 전남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자협약을 통한 기업유치에 성공해 다른 시군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결실을 맺어 보았다.

강진군은 지난 18일 강진군청 대

여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날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강진군은 2020년 목표-보성간 철도 완공, 2023년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있고 교통, 저렴한 분양가, 신속한 행정 협조·지원 등으로 현재 많은

달성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00% 분양이 달성되면 69개 기업, 사업비 3천억원, 1천여명에 이르는 지역 인제 고용효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날 강진산단 입주를 예약, 투자협약을 체결한 승현실업(주)은 폐후대진화와 폐컴퓨터 등의 회로기판에서 금, 은 등 금속성분을 추출해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설부지 7천123㎡, 사업비 44억원 투자로 강진산단에 공장을 설계중이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철량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신안천사기는 마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2016년 김가공 업체 최초 철량수상, 2017년 3천만원 수출답을 수상한 국내 굴지의 기업이다. 경기도 이전에 제1, 2공장 신안 입하도에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철량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김 원초를 확보하고 양질의 마린 김을 생산하기 위해 강진군에 제3공장을 건립하게 됐다. 2020년 말까지 철량농공단지에 시설부지 6천811㎡, 사업비 158억원 규모의 김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원식품(주)은 40여년 동안 2대째 가업을 이어온 해조류 전문 가공기업으로 철량농공단지에 시설부지 8천26㎡, 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주)신안천사기와 함께 해조류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초샐러드, 해초무침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3개 기업 투자협약으로 철량농공단지 100%분양 달성 등 산단 분양 순조로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강진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주)신안천사기 등 3개 기업 투자협약 일자리 100여명 창출 전체 사업비 규모 252억원... 새해 지역민에 기쁜 소식 알려

회의실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진원 강진군수, 김상운 강진군의회 의장, 각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신안천사기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전남 지자체 중 체결한 첫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 역시 강진군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사업비 규모만 전체 252억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무려 100여명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새해 지역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의 하나로 받아들

투자기업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서남해권 산업을 견인하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전면에 위치한 강진산단지는 총사업비 532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나주 혁신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m당 9만원 대에 불과한 저렴한 분양가, 편리한 교통으로 서남권 산업의 중추기지로 빠르게 성장중인 유망산단이다. 강진군은 연말까지 분양률 50%



## 목포시 "영화 1987 연희네슈퍼 간다"

### 27일 오거리문화센터서 출발...법정 스님의 무소유길 등 탐방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관광루트 테마거리와 연계해 추진 중인 탐방해설 프로그램 '육단이 길 골목투어'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출발해 법정 스님과 고은 시인이 만난 정광정혜원, 무소유길, 이훈풍 정원, 유달초교, 보리마당 등을 지나 시화마을 골목길로 내려가서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희네슈퍼와 인근에 위치한 길이 31m의 동굴(일제강점기 방공호), 유곽거리 등을 둘러본다. 연희네슈퍼 탐방은 이번 투어에 한해 진행된다.

육단이길은 유달산 자락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결한 관광루트다. 이매방·차별석·김우진·허건·박화성·법정스님 등 유명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장소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보 여행자를 위해 이정

표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스토리북 '목원동 이야기' 책자와 문화지도도 제작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골목길 해설사 17명을 양성해 탐방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육단이는 차별석의 작품 '육단어'에 나오는 인물로 1930년대 초반부터 해방 무렵까지 활동한 물장수로서 목포의 4대 명불역사의 맴라공, 평화극장 외팔이, 대성동 쥐약장수) 중 한 명이었다.

앞으로 시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탐방객과 함께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골목길 옛 이야기 거리공연 등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목포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골목길 잠재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해남군, 설 명절 선물세트 출시

해남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남의 명품 농수특산물로 구성된 고객 맞춤형 종합 선물세트를 준비, 소비자를 찾는다.

해남군이 출시한 설명절 선물세트는 쌀과 잡곡, 재래김 등 농산물과 함께 해남 특산물인 건무화과, 함초소금, 고구마말랭이 등 다양한 품목을 소포장 단위로 구성해 해남의 명품 먹거리를 두루 맛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조정됨에 따라 부담 없고 실속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종합선물세트는 품목 구성에 따라 4만원, 7만원, 10만원 세트로 준비됐으며, 30개 이상 대량주문 시 주문맞춤형으로 선물을 구성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남 설 선물세트 등은 해남군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 (<http://www.hnmiso.com>, 080-859-1100)에서 한눈에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 해남미소에서 열리는 설맞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오는 2월 13일까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총액과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고객에게 해남미소 20만원 이용권을 증정하는 등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확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